

세계 최정상 브레이킹 댄서들, 전주에 모인다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개최

전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내외 브레이킹 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비보이팀 라스트포원이 지난 2005년 독일에서 열린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2007년 처음 시작된 국내 최정상 브레이킹 배틀 대회로, 총상금 규모는 1800만 원이며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 대회는 해외 브레이킹 댄서들의 자발적인 참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17회 대회에서 일본팀 '비디카니발'이 참가해 우승한 이후,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유명 브레이킹 댄서들이 해마다 전주를 찾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의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 중견 댄서 중심의 대회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포스터

유스 세대 댄서들의 참가가 크게 늘며 브레이킹 씬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전주 무대에서도 젊은 브레이킹 댄서들의 에너지와 기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심사위원으로는 △2023년 국제댄스포츠연맹(WDSF) 아시아 브레이킹 선수권대회 비걸 부문 동메달리스트이자 전주 출신 국가대표 비걸 전지예(FRESH BELLA) △대한민국 대표 브레이킹크루 퓨전엠씨 단장 황정우(FLEX) △독창적인 브레이킹 스타일을 갖춘 이병준(MARIO) △레전드 파워뮌버 김연수(THE END) △엠비크루와 미국 스타일엘레먼트크루에서 활동한 박진형(DOL) 등 5명이 참여한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배틀 스타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흥미진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배틀 결과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진행은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고정 MC로 활약해 온 JERRY(김근서)와 DU LOCK(정상현)이 맡고, 대한민국 브레이킹 배틀 DJ로 잘 알려진 WRECKXX(최재화)와 ZESTY(임석용)가 음악을 책임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행사 오프닝에서는 심사위원 5명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심

사위원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또, 스페셜 게스트로 △유명 스트릿댄스팀 '한아(HANYA)' △청소년 왁킹댄스팀 '쏘왓(SO WHAT)'이 참여해 브레이킹 배틀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그랑프리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일원에서는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SELF DTF ZONE'이 마련되며, 스트릿 문화 기반 브랜드인 'INTO THE DEEP'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시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가 국내 브레이킹 대회를 넘어 세계 각국 댄서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주가 세계 브레이킹 댄서들의 교류 도시이자 국제적인 브레이킹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본 행사 입장권은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음식문화개선' 성과 빛났다

전주시,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가대표 미식도시인 전주시가 맛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과 위생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선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지자체 중 전주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갖춘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식품안

심업소 확산 △식품안전업소 홍보 △자발적인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등 5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시는 식품안전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난 2020년 142개소에서 지난해 말 508개소로 약 257% 확대했으며, 이 중 94%(478개소)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전북 최초로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위생 관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나아가 시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넘어, 누구나 불편 없이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EU 도시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1만 유로 경쟁기금 확보

세계 97개 도시 참여 28개 프로젝트 공모서 우수과제 선정

전주시는 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유럽 도시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추진한 협력과제기금 공모(이하 EU) 기금 공모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돼 착수기금 1만 유로(한화 약 1700만 원)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EU의 IURO(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관광·도시혁신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유럽과 비유럽 도시 간 정책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기구이다.

이번 공모는 IURO 참여 도시의 프로젝트 추진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혁신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97개 도시의 28개 프로젝트 중 전주시·포르투갈 코임브라(Coimbra)·이탈리아 프라토(Prato)가 공동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등 총 2건이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르투갈 코임브라 등 유럽 협력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거

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위한 도시별 정책을 공유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해외 도시와의 협력체계 확장과 중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EU의 공모 기금을 활용해 오는 9월로 예정된 '2026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각 도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소개 △스마트관광 기술 접목사례 공유 △공동협력선언의 시간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적 관광정책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이올러 시는 성공적인 IURO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각 도시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 및 국제회의(2026 싱가포르 세계시장포럼) 참여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이번 경쟁기금 선정은 전주시가 국제도시 협력 분야에서 MI로부터 국제적 정책 역량과 협력체계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우수도시와의 지속적인 정책교류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주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코레일 전북본부, "이팝나무 철길 무단 출입 절대 안돼요"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는 이팝나무 축제 종료 이후 팔복동 복전주선 철길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시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팔복동 예술공간 일원 복전주선 630m 구간은 양 기관이 지난 2024년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말~5월 초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팔복동 복전주선은 축제 종료 이후에도 현장을 찾아 철길로 들어서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복전주선에는 현재까지도 인

근 산업단지 내 사유 기관차와 화물열차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하루 평균 4~5차례 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라도 선로 위의 자갈·침목, 불규칙한 노면, 협소한 노폭 등으로 인해 일반 보행로와는 안전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 관리가 없이 선로에 들어서

는 것 자체가 중대한 부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엄연한 선로·철도 시설로 분류돼 있어, 코레일의 사전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호기심이나 인증 사진 촬영을 위한 출입도 예외가 없으므로, 반드시 안내판과 통제선을 준수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전주시는 14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성실 신고·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거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시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배포하며 신고·납부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 안내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또는 합동신고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특히 방문 신고시에는 윈스톡으로 시민들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별관 2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채움 대상자와 전자신고가 어려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